



새로운 계획과 비전으로 2006년 제1차 이사회 회원 위한 사업 새 출발

(사)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는 지난 1월 20일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200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제44차 정기총회에 앞서 2006년도 협회 사업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빵빵데이>나 지방 예선전 등 협회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글과 사진_김영주 기자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200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조병천 수석 부회장, 박찬희·유현식·임영진 부회장과 이사진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을 보고 받고 올해 협회 사업과 비전에 대해 깊은 토의를 함께 나누었다.

회의에 앞서 김영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Siba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이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휴카드 폐지를 위해 힘쓴 비상대책위원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2005년도 제3차 이사회 결과에 대한 안건 경과 보고와 사업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2005년도 사업 실적 보고에서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를 비롯해 교육지도 사업, 자율지도사업, 기술발전사업, 국제교류사업, 이동통신사 제휴카드폐지 비상대책위원회 지원 사업, 기술발전기금 및 찬조금 현황 등 지난해 협회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가 이사진에게 보고되었다. 이사진들은 2005년도 사업 실적과 수지결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의결했다.

200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에서는 올해 협회가 일궈나갈 사업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이사진들은 그 동안 출품 경연으로만 열렸던 한국여성제과기술인 경연대회 가운데 소형공예와 양과자 부문의 경연방식을 실기 경연으로 바꾸고 수거크래프트 부문만 출품 경연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결정했다. 또 오는 9월 시범종목으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10월

개최될 제2회 한국학생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기술 세미나 사업에 대한 토의가 이어져 지역 맞춤형 세미나 실시 등 여러 건의 발전적인 의견이 추가됐다.

이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미납된 지회·지부의 협회비에 대한 결산을 처리하고 신설된 지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창립 1년 동안 회비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특히 협회비 인상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난 9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었던 터라 협회의 자생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소폭 인상에 합의하고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제과업계가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축제 <빵빵데이>를 업계 기념일로 지정해 올해부터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지방 기술인의 활발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는 전국크림치즈실기경연대회와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의 지방 예선을 개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난해 구축이 미뤄진 협회 세미나실은 재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 사항을 이사진으로부터 추진 받았다.

끝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인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정관을 심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매달 지회에서 해야 했던 의무보고를 분기말로 바꾸고 선출직 임원에 대한 구비 조건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정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 및 선거와 관련해서도 조정을 거쳐 협회 사업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